

# 與野 애타는 '텃밭' 사수 작전

민주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16일 4·29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전주와 경주에서 각각 세물이를 시작하며 지원유세에 들어갔다.

특히 이 지역은 양당 모두에게 안방이나 마찬가지지만 강력한 무소속 후보의 등장으로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전면전에 나섰다. 이에 무소속 후보들도 바람몰이를 시도하며 양대 정당에 정면으로 맞섰다.

◇전주=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오후 전주로 총출동해 완산강과 덕진 출정식에 참석한 뒤 이광철, 김근식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펼쳤다.

정 대표는 전북도당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동영·신건 '무소속 연대'와 관련, "이명박 정부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당에 대해 정치의도를 저버린 처사이자 정치 환멸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전주의 자존심을 지키느냐, 부도덕한 후보에게 운정을 쏟아 수치를 자초하느냐의 갈림길"이라며 "당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 당을 해체하고 쪼개 부수려하는 것은 수권정당 가능성을 지우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이처럼 전주 총력전에 나선 것은 무소속 바람이 휘몰아칠 경우 텃밭 2곳에서 완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동영·신건 연대'를 '당분열 후보'로 성토하는 한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정, 신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만류했던 점 등을 내세우며 무소속 바람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 '강력 무소속' 출현에 비상

## 경주·전주로 지도부 대이동

이에 따라 지도부는 DJ의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에겐 전주 지원유세를 요청했으며 박 의원은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정동영 후보는 전북대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이명박 정권에 참석한 뒤 이광철, 김근식 후보의 방향을 바꾸려면 제1야당이 강하고 야당 구실을 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현 정부를 심판해야 할 선거를 '정동영 죽이기' 선거로 만든 민주당이야말로

바뀌어야 할 대상"이라고 반격했다. 신 후보도 기자회견에서 "전주가 친노 386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가서야 되겠다"고 주장했고, 무소속 연대에 대해서는 "전주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면 '연대'는 물론 '연합'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경주=박희태 대표와 정몽준 최고위원, 이병석·유정현 의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주에서 정종복 후보의 출정식을 갖고 한나라

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정종복 후보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박 대표는 정종복 후보와 외동읍사무소로 이동해 지원유세를 펼쳤다.

무소속 정수성 후보도 이날 오전 경주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물이에 나섰다. 정수성 후보는 "경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역사문화특별시로 승격시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주발전 구상을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29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6일 전주시 덕진공원에서 열린 공명·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한 덕진 재선거 후보들이 각각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희재·김근식·염경석·정동영 후보. /연합뉴스

## 전주 덕진 '집안싸움' ... 엇갈린 민심

"미워도 정동영 짝어야제" "지역위해 도대체 뭘했나"

"미워도 다시 한번 아녀. 정동영이가 이 지역에서 뽑아준 사람임께 키워줘야지", "정동영이가 전복을 위해 한 게 모여, 여기 와서 또 뭘 하려 그래."

4·29 재보선 선거운동 첫날인 16일 전주 유권자들의 민심은 전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지지와 실망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덕진구 동백장 사거리에서 만난 신

양근(61·한약방 운영)씨는 "정동영이 전주의 인물이니 키워줘야지"라며 "탈당을 한 거는 당이 버린 거 아님니까. 그건 당이 잘못한 거지. 그리고 아무 인지도도 없는 사람을 후보로 달궂해놓으니 분위기가 영 좋지 않죠"라고 말했다.

택시기사 이모(51)씨도 "암만 해도 정동영이 되면은 낫지 않겠소. 대선에서 이길만한 사람은 정동영뿐이니까. 김대중 때도 남도하고 북도하

고 틀렸잖어. 팔이 안으로 굽지 뒤로 굽지는 않지"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강행 등 귀국 이후 보여준 일련의 정치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임삼수(32·병원 근무)씨는 "지지는 못하겠어. 하지만, 정동영은 찍지 않을 거다. 대선에서 떨어지고 서울에서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다시

지역으로 내려온다는 게 기회주의자 같다"고 비판했다.

한 40대 직장인도 "정동영이는 나오면 안 돼, 여기 와서 또 뭘 하려 그래"라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식당 직원 문모(55)씨는 "투표 안 해요. 그놈이 그놈이요. 정동영이가 전복을 위해 한 게 모나. 새만금을 내놔서 놓고... 근데 민주당도 그러요. 김근식이 너무 생소하잖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여권 전패 계파 갈등 ... 정국 주도권 상실

## 민주당 '鄭 공천불가' 책임론 거셀듯

### ■ 4·29 재보선 스코어별 시나리오

4·29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16일 개시되면서 결과뿐 아니라 그 이후 정치권의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는 5개에 불과하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하고 이에 따라 각 당 내부 역학구조도뿐 아니라 길게는 차기 대선구도에도 변수로 작용하는 등 정치권이 큰 파동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전패 경우=당내 역학구조의 변화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원외인 박희태 대표의 리더십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 지도부 공백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표 체제가 붕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전쟁이 벌어질 경우엔 이미 계파 간 갈등의 골이 깊은 한나라당의 원심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한, 여권은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야당 공세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초대형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의 성격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있는 야당의 주장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전패할 경우=정세균 대표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장관에 대한 공천불가라는 결단을 내린 정 대표가 선거과매의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대표가 물러날 경우엔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장관의 복당 여부도 부담시키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제1야당이 민주당 이 전패 후유증으로 내홍에 휩싸

인다면 향후 정국주도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경주 선거 패배=한나라당이 부평을이나 울산 북구에 승리해놓고서도 친박무소속인 정수성 예비역 육군대장이 출마한 경우에서 패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내 역학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당내 주류인 친이계의 분열이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장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축소되고, 최근 잠행하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의 역할에 대한 주류 내부의 기대감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 부평을만 승리=민주당이 전주에서는 모두 패배하더라도 부평에서 승리하면 정 대표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국 운영 주도권을 민주당이 쥐게 된다. 다만, 정동영·신건의 복당 문제가 불거지면 당내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 여권 지도부 광주 방문 애로 청취



◇한나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 광주·전남지역의 애로사항을 듣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모색한다.

4선의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구)은 16일 5·18 국립묘지를 참배(사진)하고 전남대에서 '국제사회와 한국 정치,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17일에는 박재순 최고위원과 안경철 사무총장, 정두언·이춘식·정양석 의원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광주 시 북구 중흥동 전남도당을 찾아 '핵심당원 교육'을 실시한다.

시한다. 특히 이들은 이날 당원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의 특수한 정치환경에 의한 당 활동의 애로점을 듣고 중앙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당은 호남인재 등용과 포퓰러(F1) 지원법의 국회 조속 처리, J프로젝트 조성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당 지도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 민주당 시당 '무등산 조례' 대안 모색

◇같은 당 소속 광주시의원들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했던 '무등산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김동철 의원)은 17일 오전 9시 시당 회의실에서 무등산 조례 관련 간담회를 마련, 찬반 의견이 팽팽한 시의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를 발의한 송재선·이철원 의원과 반대 의견을 피력한 유재신·진선거 의원이 참석, 찬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익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순경공채**

**수시접수중 (종합 및 문제풀이)**

**경 찰**

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1년과정	순경공채	특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li> <li>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한</li> <li>수강료 25% D/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개월 완성 6회 반복 학습</li> <li>영어 기본이 인된 수강생 한한</li> <li>수강료 50% D/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1차: 966명 2차: 214명</li> <li>여·1차: 40명 2차: 47명</li> <li>101단·1차: 120명 2차: 12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익경 특채 240명</li> <li>경찰 행정학과 특채 100명</li> <li>경찰 특공대 특채 38명</li> </ul>

※ 종합 1개월: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13만원 · 단과: 9만원

**경 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226-5050

**= 48년의 전통! 오랜 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른 보물이다! =**

**7.9급 공무원 전직력**

**을 적중문제풀이 4주** 해교세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복소기 정행무제사원철약공정호건호지방술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인 원 (지급료 790,220원, 2급 800여명 공채)
- 시험일: 지방직 7급 5월22일, 7급 2월22일, 시험 5월17일, 지방직 7급 5월17일

**개 강** 4\*15w(주야 2교반모집) (현재상당접수중)

**은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형법, 형사법, 교정학, 헌법, 복지학, 민사법, 소방법, 토건학, 상사, 기타

**= 無等은 옛 명성 그대로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습니다!! =**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광주 동구 서문 (중원초교 후문인) ☎ 222-4560

직장인, 주부, 학생을 위한

**공인중개사**

**주말반 국비 환급 100%**

합격률 100% 책임 지도 관리  
출석부 관리, 숙제, 쪽지 시험 시행  
박문각 교재, 동영상 30%DC  
기출문제 풀이(수요알림, 무료알개론, 오후 3시~5시)

**개강** 주말반 4월18일(토)

성무지구에서 자동차로 5분거리

**공인중개사전문학원** 전국 최대, 최고의 합격생 배출한 서울 박문각 합격 시스템(실강의)으로 운영

☎ 0621529-8838

0621529-8838

**한라기술의 공기열보일러를 설치하시면?**

**전기1+공기중 열에너지2+열에너지3**

- 벙커 C유 대비 70%
- 도시가스 대비 65% 절감
- 전기보일러 대비 3배의 효율
- 한 대의 기계로 냉방, 난방, 온수까지 3배의 효과
- ◆ 생산공장, 대중탕, 호텔, 병원, 복지시설, 식당 등 \* 전국 시,군 대리점 및 딜러 모집합니다.

**한라웰스텍(주) 특판사업부** 광주 동구 대리점

063)838-2231, 010-6794-0094 062)225-2137